

지역 소식통

전주개인택시 김제향우회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에 따르면 전주개인택시 김제시향우회(회장 김춘섭)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에 설립한 이래 3주년을 맞은 전주개인택시 김제시향우회는 90여명의 출향인으로 구성되어, 김제 시장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변함없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평선 공동브랜드 택시 차량의 홍보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금 중 일부를 기탁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주개인택시 김제시향우회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김제사랑장학재단에 2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부랑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김제시 부랑면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기능을 수행할 2021년 부랑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부랑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2월 24일까지이다.

부랑면에서는 공개모집방법과 부랑면 소재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치기획, 교육문화, 봉사복지 분야에서 총 24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최종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랑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흥기 부랑면장은 “부랑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날개'

김제시, 국비 4억 7500만원 추가 확보... 취약계층 영양개선 등에도 큰 기여 기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국비 4억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6일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7,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비 4억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추가 국비 확보로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및 농식품비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씩 1년간 지급하게 되며, 김제시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박준배 시장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망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16일 완주군은 겨울철 추위와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도 799호선 14km 구간에 있는 배롱나무에 벗짚거적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 완주군, 군비 직불금 이번주부터 지급

8606농가에 군비 35억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주군이 자체 직불금 35억원을 공익형 직불금 지급 기준에 맞춰 이번 주부터 지급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비 쌀직불금은 벼·논을 중심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지급된다.

논·밭 구분없이 공익형 직불제로 선정된 농가·농지를 규모와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대상을 구분해 대농과 소농의 지급 금액 격차를 완화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입 취지에 맞게 지급한다.

군비 직불금 대상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6,350ha를 경작하는 8,606농가가 대상이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 중 소농조건을 충족하는 3,967농가(1,327ha)에 대해 재배 면적과 관계없이 3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4,639농가(5,024ha)에 대해 농지규모에 따라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금년도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먼저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52억원을 포함 도비, 군비를 합쳐 총 200억원이다. 읍·면을 통해 농가별 지급정보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계좌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지급한다.

박성일 군수는 “정부의 공익직불제 개편방향에 맞춰 소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직불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게 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재해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지급되는 군비 직불금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 개편된 제도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시니어클럽, 전국 노인일자리대회 우수기관 표창

김제시니어클럽(천경희 관장)은 16일 2020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에 선정되었고 직원 육성택 과장은 보건복지부위원장상, 참여자 요촌동 전옥순어르신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회장을 수상했다.

그간 김제시니어클럽은 2011년 8월에 설립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20여개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건강과 지식,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

특히 시장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늘푸른 두부사업’과 각 마을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공동 재배하는 ‘사계절농장사업’이



김제시니어클럽의 대표사업으로 매우 활성화가 되어 노인복지 혜택 제공 및 경제적 도우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김제노인상담소를 개설해 표면화되지 않는 노인문제에 대해 상담(개별 및 집단 방문상담, 노인의 성생활, 노인학대, 노후재산관리, 가족문제 등)

을 통해 노인들의 노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천경희 관장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건강과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가로수 월동준비 다 됐어요”

완주군, 벗짚거적 설치방염화칼슘으로 부터 보호 역할

완주군이 가로수 월동준비를 마쳤다. 16일 완주군은 겨울철 추위와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도 799호선(봉동읍사무소~익산IC) 14km(연장) 구간에 있는 배롱나무에 벗짚거적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벗짚거적은 겨울철 찬바람이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풍역할을 하고, 폭설에 따른 제설제 사용 시 수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지방도 뿐만 무장애나눔길과

삼례읍 상생나눔숲에 있는 추위에 약한 은목서(100주), 배롱나무(30주)에도 벗짚거적을 설치했다.

또한, 완주군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따죽지 조성구간 6.3km, 삼례신금로(통합중학교) 따죽지 1.3km에 제설제 보호막을 설치해 동해피해 및 제설제 피해에 대비했다.

반장원 산림복지과장은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하고 철저한 월동준비로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 진봉면 익명 기부천사, 백미 120포 기탁

김제시 진봉면(면장 김용현)에 거주하는 익명의 주민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백미 10kg 120포(347만 4,000원 상당)를 진봉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익명의 주민은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10kg 쌀 120포를 전달하는 등 진봉면의 이름없는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어 관내에서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김용현 진봉면장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을 알리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진봉면을 따뜻하게 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격상 및 장기화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후원받은 백미 120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이장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